

국군방송 창설 50주년 축하 메시지

국군장병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국군방송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

국군방송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장병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 왔습니다. 군과 국민을 이어 주는 훌륭한 다리 역할도 해 왔습니다.

나는 아직도 군대시절을 생각하면 국군방송의 '위문열차'가 기억납니다.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시작되던 '위문열차'는 우리 장병들에게 큰 즐거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.

국군방송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방전문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특히 내년부터 시작될 위성TV 방송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.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.

국군장병 여러분,

군은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입니다. 우리 국민 모

두는 장병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욱 사기충천하고 강력한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국군방송 50주년을 축하합니다.

장병 여러분, 모두 건강하십시오.